

#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으로 광주 시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광주광역시 강계두 경제부시장 지난 7월 7일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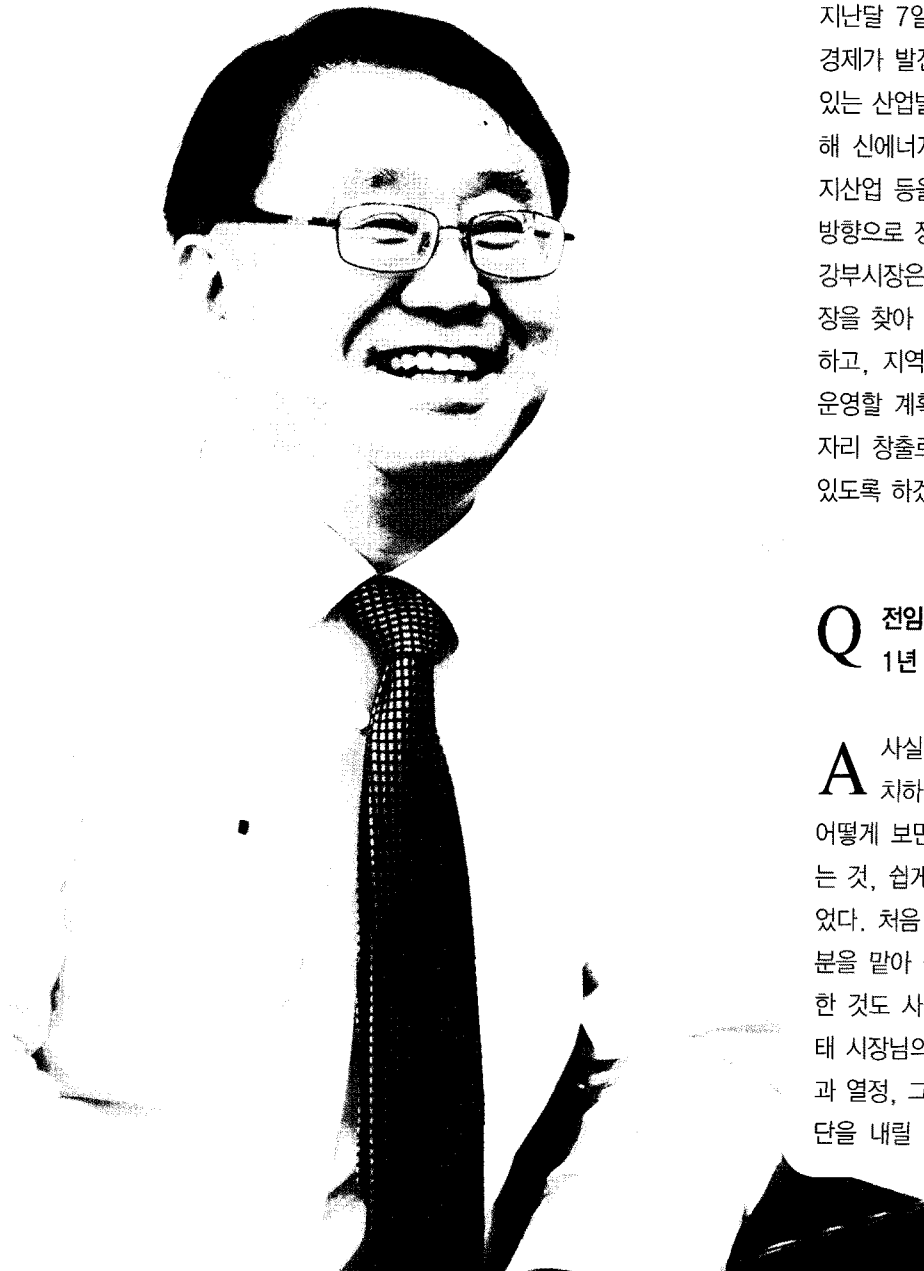
“강운태 광주시장님의 100대 공약실천과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4년이내 매출 1,000억의 강소기업이 지금의 2개에서 10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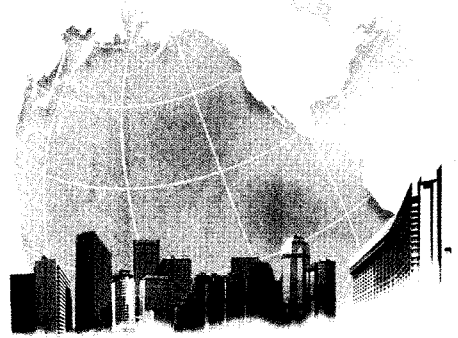
지난달 7일 취임한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광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광산업을 비롯해 신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밀금형산업, 차세대 전자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부시장은 또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기업 및 산업현장을 찾아 많은 목소리가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산·학·연·관의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경제 정책의 최대 지향점인 일자리 창출로 광주시민 모두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전임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임기를 1년 5개월 남겨놓고 광주로 옮겼는데, 소감은.

**A**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임기 중간에 이직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립이나 경제구도에 있는 조직으로 간다는 것, 쉽게 말하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 제의를 접하고 과연 내가 이러한 막중한 직분을 맡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에 주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강운태 시장님의 권유와 시장님의 광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보았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고향에 나고 자라 잔뼈가 굵은





광주의 아들로서 제 고향 광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 미력하나마 제 혼신의 힘을 다해 광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제 고향에서 정말 아름답고 보람차게 마무리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Q** 광주 경제의 현주소는. 장·단점은 뭔가.

**A** 지난 시기 광주경제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분명하다. 매우 빈약한 생산기반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전국 유일의 광(光)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로 특화되었으며, 만년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생산도시이자 수출도시로 변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 경제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현주소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는 지역 내총생산(GRDP)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기준 광주시의 GRDP는 22조 4,580억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수준이며, 1인당 GRDP 또한 15,519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73.1%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우리 지역의 생산기반과 연구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생산과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구조의 제조업 비중이 23.8%로 전국 평균인 28.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유망한 자립형 중소기업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광주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2005년 이후 GRDP 중 제조업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띠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역내에 입지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 광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또 필수적인 기능인력에서 고급연구개발 인력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인력배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이들 대기업 현지공장이 주로 생산기능만을 담당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관련 협력업체들의 기술혁신역량이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광주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유일한 광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박차”**

**Q** 광주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A** 광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발전은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기간산업과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광주 경제에 있어서 50% 수준을 지탱해온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생산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업체의 기술경쟁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광산업을 비롯하여 신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밀금형산업, 차세대전지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산업 단위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간 융복합 촉진계획 등을 금년 중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광주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도 노력”

**Q** 광주연구개발 특구의 조성 방향은.

**A** 광주시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하여 도약단계에 있는 광산업·디지털정보가전산업·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디자인산업·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인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공동연구 등 상호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제간 협력을 강화하는 개방형 연구·산업화 국제협력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글로벌 국제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우리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그리고 중국의 무한 국가광전자연구소와 상해 반도체조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업화하는 국제적인 산업 협력단지로 조성해 가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방형 단지임은 물론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함께 갖춘 연구·산업화 복합단지, 그리고 녹색기술(GT)과 문화기술(CT)이 융합된 특성화된 특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Q** 취임사에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7가지 지침을 감히 제안한 바 있다.

**A** 지침의 첫째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세계임을 인식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술 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둘째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는 행정 처리절차와 과정을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따라서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투명정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는 고객 위주의 수요자 중심 경제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행정의 고객인 시민과 기업 위주로, 그들이 필요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실용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조선중기 형이상학적인 공론을 배격하고 실학문화를 꽃피운 것처럼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실리추구의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기준에 의한 사업 타당성인데, 투입대비 산출을 표시하는 효율성과는 달리 공공가치가 있는 행정부문에 목표는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효과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섯째는 인사나 포상에 있어서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는 행정 내부적으로 연공서열이나 지연·학연·혈연 등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맡은 업무와 이루어 낸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남의 행복이 커진다고 내 행복이 줄어들지 않는 플러스 섬 게임(Plus Sum Game) 문화 조성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손해봐야 내 이익이 커진다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 문화였다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모두의 이익이 동반상승 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도 노력”

**Q** 광주시의 경제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A** 현재 일자리 창출은 국정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시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10만개 창출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먼저 노·사·정, 시민단체, 대학 및 학생대표 등을 망라한 협의체 구성으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시민적 역량 결집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사·민·정을 아우르는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소통이 전제되는 사회적 합의 도출로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체제를 갖춘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고용창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시책과 연계한 희망근로, 행정인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다. 다음은 민간부문인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와 콜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 기업유치는 우리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한 소기업 중심과 대기업 의존형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 유치에 주력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의 5대 주력산업 및 미래가치산업 위주의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말이 있다면.

**A**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위해 봉사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역사적인 민선 5기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슴을 활짝 열고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노·사·민·정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 합심노력함으로써 우선 파이(Pie)를 키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계속의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한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희망과 꿈의 실현을 위해 시민 모두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지난 8월 3일 첨단단지 연구·지원기관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위의 사진은 광산업전시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임.